

'육상 명가' 광주시청, 남자 1600m 계주 3연패

주전 부상에 멀리뛰기 김명하 합류...모일환, 햄스트링 딛고 역전드라마

광주, 양궁 오예진 '3관왕'·역도 손현호 '3관왕'...복싱 한영훈 '4연패' 전남, 복싱 박초롱·최준원 '금편치'...씨름 최정만·사이클 김하은 '금'

B '육상 명가' 광주시청이 남자 일반부 1600m 계주 3연패를 달성했다. 고승환, 김명하, 이재성, 모일환이 팀을 이룬 광주시청은 22일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일반부 1600m 계주에서 3분09초21을 기록, 충남(김현탁·전하림·서민준·최선재) 3분09초59, 경기도(이정훈·배건을·김의연·한누리) 3분09초72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파리 올림픽 3관왕' 임시현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대회 3관왕에 오른 오예진.

400m 주전 선수의 부상과 백업선수의 부재, 시합도중 햄스트링 부상까지 모두 이겨낸 선수들의 절실함과 정신력으로 거둔 금메달이라 더욱 값지다.

광주시청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간판 선수인 김국영이 부상으로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부상 선수들이 잇따르며 위기를 맞았다.

분위기가 좋지 못하자 남은 선수들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이날 1600m 계주를 앞두고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00m 주전 선수 부재에 멀리뛰기 선수인 김명하가 계주 멤버로 합류한 광주시청은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다. 가장 큰 행사인 전국체전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각오를 다졌고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뛰여보자고 의기투합했다.

김명하가 첫 주자로 나섰다. 필드가 주 종목인 김명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60-70m 가장 뒤쳐졌다. 하지

만 바통을 이어받은 남은 선수들이 기적적 일으켰다.

고승환이 3위까지 올라섰고 이어 이재성이 1위와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모일환이 30여m를 역전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모일환은 300여m를 달린 뒤 왼쪽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으나 멈추지 않고 질주했다.

정신력으로 달린 모일환이 기적같은 역전에 성공하면서 광주시청은 값진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번 1600m 금메달은 오로지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만든 값진 성과"라며 "백업 선수조차 없어 멀리뛰기 선수인 김명하가 첫번째 주자로 나서서 최악의 상황이



22일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일반부 1600m 계주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한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고승환, 김명하, 심재용 감독, 모일환, 이재성

어서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수들이 감동적인 역전드라마를 만들면서 의미있는 금메달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남U18 계주 1600m에 출전한 광주체고(김찬·오희성·장근우·문주영·백의연·황원우)도 3분13초21을 기록, 경기선발팀에 0.02초 앞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양궁 오예진은 3관왕에 올랐다.

앞서 열린 거리별 경기에서 '파리 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체대)과 금메달 2개씩을 나눠가지며 명승부를 펼친 오예진은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 다시 만난 임시현을 세트 스코어 7대3으로 꺾고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대학부 최강을 각인시켰다. 역도에서는 손현호(광주시청)가 3관왕 3연패

를 달성했다.

손현호는 남자일반부 81kg급 경기에서 인상 154kg, 용상 198kg, 합계 352kg을 들어 올리며 3관왕에 올랐다. 제104회 체전부터 이 부문 최강자로 3연패를 달성한 손현호는 2008년 LA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복싱 한영훈(동구청)은 남자일반부 라이트웰터급 결승에서 최민수(충남)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며 4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선수단은 복싱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일반부 플라이급 박초롱(화순군청)과 남U18 플라이급 최준원(기술평화고)이 '금빛 편치'를 신고했고, 여자일반부 라이트급 임애지(화순군청), 남U18 라이트 플라이급 정광진(전

남체고), 남자일반부 라이트급 고성훈(목포시청), 시범종목 여U18 플라이급 장시은(전남체고)이 각각 은메달을 수확했다.

육상에서는 김장우(장흥군청)가 세단뛰기에서 16m4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일반부 1600m 계주에 나선 전남선발(이서빈·이기쁨·이아영·이은빈·최지선·남보하나)과 여U18 1600m 계주 전남선발(김유림·박재경·신규리·윤제리·정해진·최지우)이 각각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전남 육상 미래를 밝게 했다.

이밖에 씨름에서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용사급에서 금메달, 사이클 여자일반부 스프린터에서 김하은(나주시청)이 각각 금메달을 수확하며 전남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박희중 기자



AI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21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개막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강경수원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확 달라진 AI페퍼스, 코트 돌풍 예고

'2強' 한국도로공사 상대 홈 개막전 폴세트 집전 끝 승전보

외국인 주포 조이 부상 결장 악재 딛고 박은서·시마무라 맹타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여자배구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AI페퍼스는 지난 2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전에서 2025-2026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2강'으로 꼽히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세트스코어 3-2(25-23 17-25 25-20 15-25 15-13)로 꺾었다.

AI페퍼스는 이날 외국인 주공격수 조이가 부상으로 코트에 서지 못했지만 안벽현 팀워크로 빈자리를 메웠다.

특히 조이를 대신해 아포짓스파이커로 출전한 박은서와 아시아쿼터로 합류한 시마무라의

공·수 활약이 빛을 발했다.

박은서는 개인 최다 24득점, 시마무라는 공격성공률 50%를 찍으며 19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1세트 박은서, 박정아, 시마무라의 공격이 성공하며 주도권을 잡은 AI페퍼스는 중반 도로공사의 추격으로 17-17 동점을 내렸으나 시마무라와 이한비의 득점으로 24-23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고, 박은서의 킷오픈 마무리로 먼저 세트를 가져왔다.

도로공사의 반격에 2세트를 내준 AI페퍼스는 3세트 시마무라가 오픈공격과 블로킹을 성공시키며 주도권을 잡았고, 이한비와 박은서의 연속 득점이 터지며 다시 세트를 가져왔다. /박희중 기자

4세트 팽팽한 접전 속에 9대9로 맞섰으나 이후 연속 실점으로 흔들리며 15대25로 세트를 내줬다.

승부처인 5세트 박은서, 박정아의 킷오픈과 박사랑과 시마무라의 득점으로 6대2를 만든 AI페퍼스는 9대6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은 듯했으나 모마와 타나치의 연속득점으로 10대10 동점에 이어 10대12 역전을 허용했다.

2연속 득점으로 12대12를 만든 AI페퍼스는 박은서의 천금같은 블로킹으로 앞서갔고 상대 공격법실로 매치포인트를 만들었다. AI페퍼스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혀 스코어는 14대13

'해결사' 박은서가 다시 한번 블로킹으로 마지막 점수를 책임지며 치열했던 승부를 매조지었다.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24일 오후 7시 화성종합철사체육관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IBK기업은행 알토스를 상대로 첫 원정에 나선다.



전남시체육회장이 22일 복싱 남자일반부 라이트웰터급 4연패를 달성한 한영훈(동구청)을 격려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전남도체육회, 생일맞은 선수들 사기 진작

'깜짝 생일 이벤트'...훈훈한 감동 선사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 기간 타향에서 생일을 맞은 선수들에게 축하 이벤트를 마련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선수단 중 생일을 맞은 선수 중 신재이(광주체고) 등 13명의 선수들을 찾아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사건경기를 포함해 대회 기간 생일을 맞은 선수 중 에어로빅 박다현(광주체고)이 금메달, 민수영 신재이(광주체고)가 주니어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펜싱 이승현(서구청), 볼링 강주연(문정여고)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김동훈(조선대), 택견 방승태(광주택견회), 수영 이문별(광주체고), 배구 김백(비오신코리아), 복싱 김지웅(동구청), 핸드볼 김희찬(조선대), 씨름 최 고(광주공고), 사격 한동완(광주체고), 하키 이소망(광주여고) 등 13명이다.

전남시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더욱 특별한 생일을 맞은 선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에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별한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도 생일을 맞은 5개 종목, 6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일정상 직접 방문이 어려운 선수들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체전 기간 생일을 맞은 육상 최예서를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게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전화로 축하인사를 전하고 기프트권을 선물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지난 19일 깜짝 이벤트를 받은 육상 최예서(전남체고)는 "대회 중이라 잊고있었는데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다"며 "전남 대표로 된다는 자부심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비록 소소한 이벤트지만 선수들이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번 체전을 통해 쌓은 경험과 추억이 앞으로 전남체육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